

ISSUE BRIEF



충남 고령자 사망률 증가와 대응방향

박 근 오 /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
keunoh@cni.re.kr

SUMMARY

배경 및 필요성

- 저출산 · 고령화 사회의 진전
- 고령층의 안전 취약성 증대
-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



3대 주요 분야별 현황

- 화재 / 교통사고 / 감염병
- 연령별,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



일본의 대응 사례

-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정비
- 지역 중심의 생활지원 추진



시사점 및 정책방향 제언

| 안 | 전 | 충 | 남 |
ISSUE BRIEF 09

1.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

■ 저출산 · 고령화 사회의 진전

- 우리나라는 사회구조의 고도화 및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음
- 특히 1999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,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등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

〈표-1.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〉

국가	도달연도			소요연수	
	고령화사회 (7%)	고령사회 (14%)	초고령사회 (20%)	7% ▶ 14%	14% ▶ 20%
미국	1942년	2014년	2031년	72년	17년
일본	1970년	1995년	2006년	25년	11년
프랑스	1864년	1978년	2018년	114년	40년
독일	1932년	1972년	2008년	40년	36년
한국	1999년	2018년	2026년	19년	8년

※자료 : 보험연구원(KIR), 저출산 ·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, 2011

■ 고령층의 안전 취약성 증대

- 각종 재난 · 사고 발생시 일반인에 비해 고령층의 대응은 매우 어려우며,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취약성은 점차 증대

〈표-2. 주요 재난 · 사고에서의 고령자 사망비율〉

사망자수 (2014년)	화재			교통사고			감염병		
	계	65세 이상		계	65세 이상		계	65세 이상	
		인	%		인	%		인	%
충남	21	8	38.1	385	162	42.1	375	306	81.6
전국	325	137	42.2	4,489	1,781	39.7	6,912	5,331	77.1

※자료 : 충남 내부자료 및 국가통계포털,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통계현황(화재)

■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

-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통계에 기초하여 7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

- 지역안전지수 공개 결과, 충청남도의 경우 4등급 3개 분야, 3등급 4개 분야로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
- 특히, 등급산출에 사용된 위해지표·취약지표·경감지표 중 사망자수가 실질적인 등급 설정에 크게 좌우되며, 각종 재난·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

〈표-3. 2015년 국민안전처 지역안전지수 결과(충남)〉

구분	화재	교통	자연재해	범죄	안전사고	자살	감염병
등급(충남)	4	4	3	3	3	4	3
최고/최저	경기/전남	경기/전남	전북/전남	전남/제주	경기/제주	경기/강원	경기/전남

■ 지자체 차원의 고령층 대응방안 모색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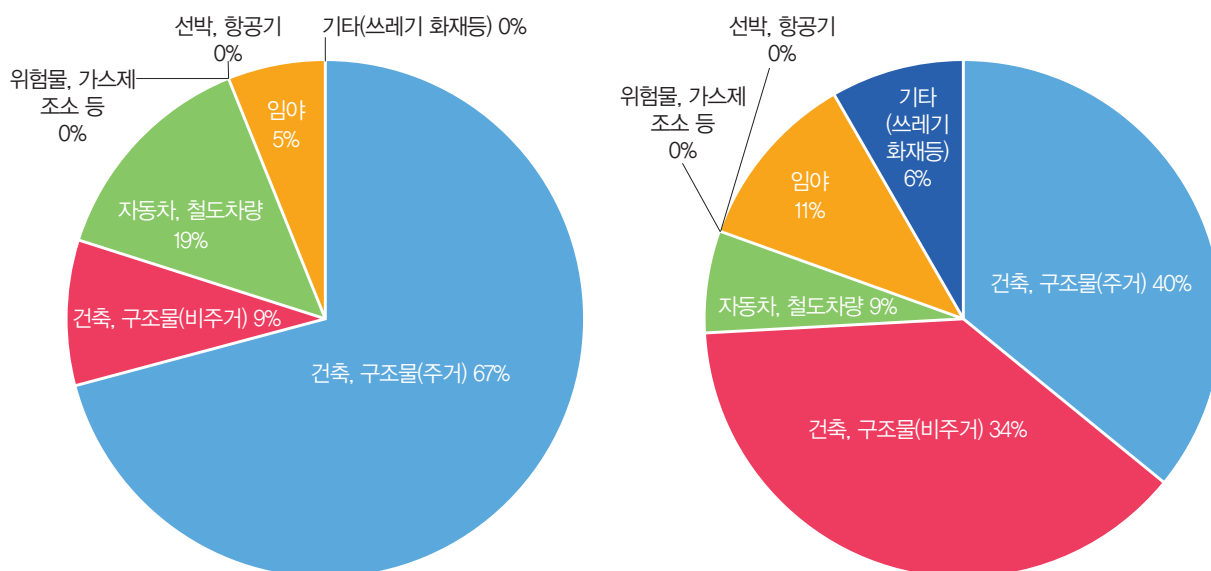
- 충남의 안전도에 관한 지표개선 모색과 함께 재난·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
- 이를 위해 201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3대 주요 분야별 원인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고,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2. 3대 주요 분야별 현황

[화재 분야]

■ 유형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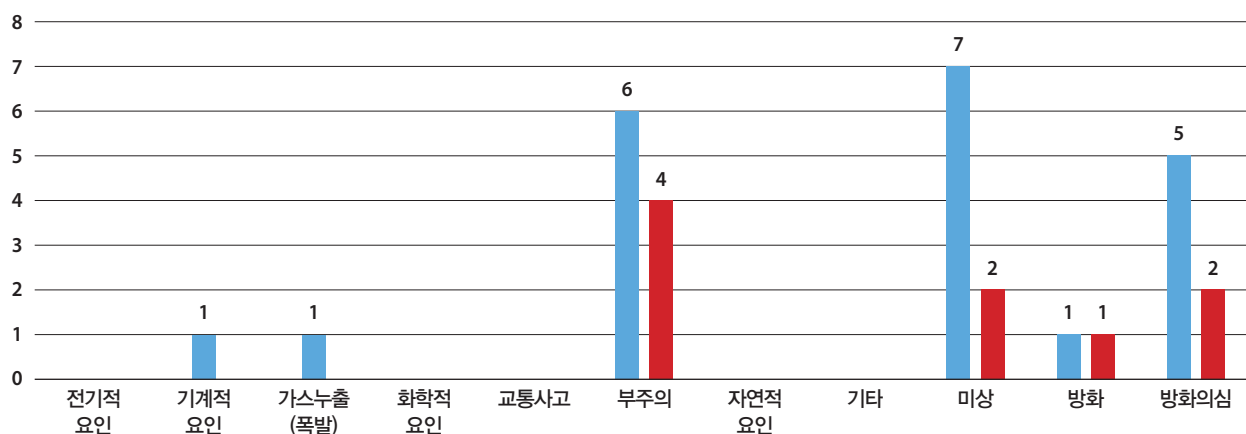
-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로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·구조물에서 많이 발생되었음



〈그림-1. 화재유형별 인명피해 현황(2014년)〉

■ 발화요인별 인명피해 현황

- 발화요인별로는 원인미상을 제외하면 부주의 및 방화·방화·의심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, 연령대별로도 60대 이상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남



〈그림-2. 발화요인별 인명피해 현황(2014년)〉

- 주로 건축·구조물에서 부주의 및 방화·의심에 의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가장 컸으며,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화재에 따른 대피 취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[교통사고 분야]

■ 교통사고에 의한 연령별 인명피해 현황

- 교통사고 분야에 있어서 충남의 고령자 사망자수는 162명으로 전국 5위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자의 사망비율은 높은 편에 속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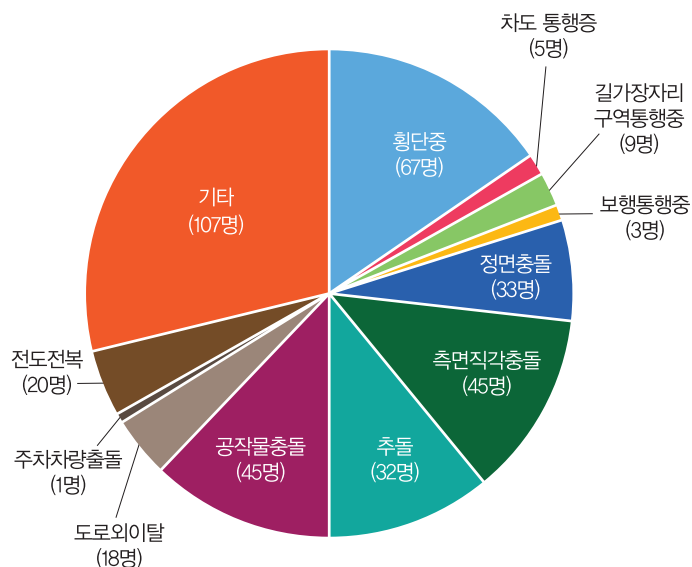
■ 사고유형별 인명피해 현황

- 사고 유형별로는 횡단중 사망자수가 가장 많으며, 보도 및 차도, 길가장자리 통행중 발생한 사망자수도 다수 발생

■ 횡단 및 보행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

인명피해 저감대책 필요

- 주택가 및 통행로 등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필요(스쿨존, 실버존, 생활존 등)
- 특히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과 반응능력이 현저히 낮은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개선 및 운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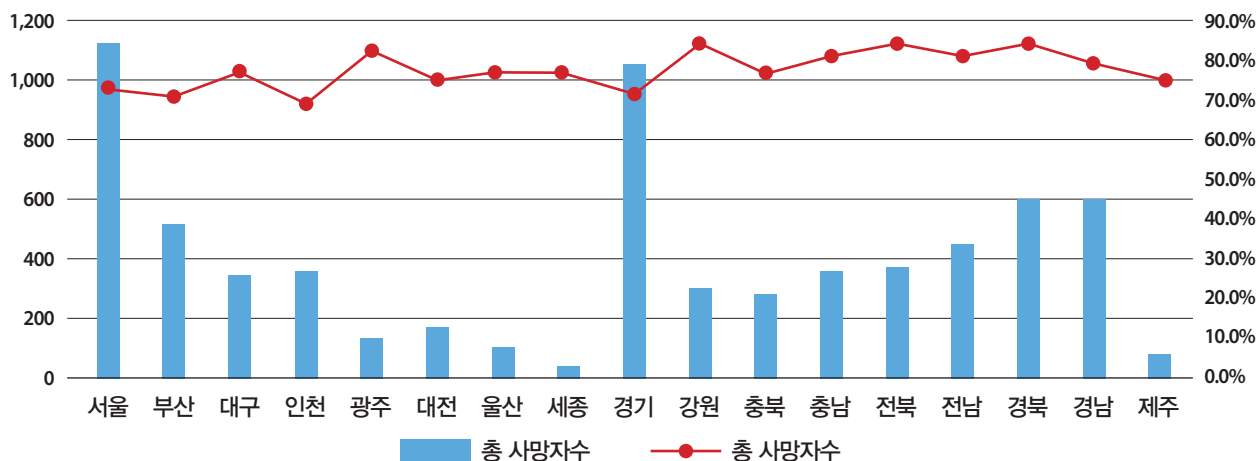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-3. 교통사고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(2014년)〉

[감염병 분야]

■ 감염병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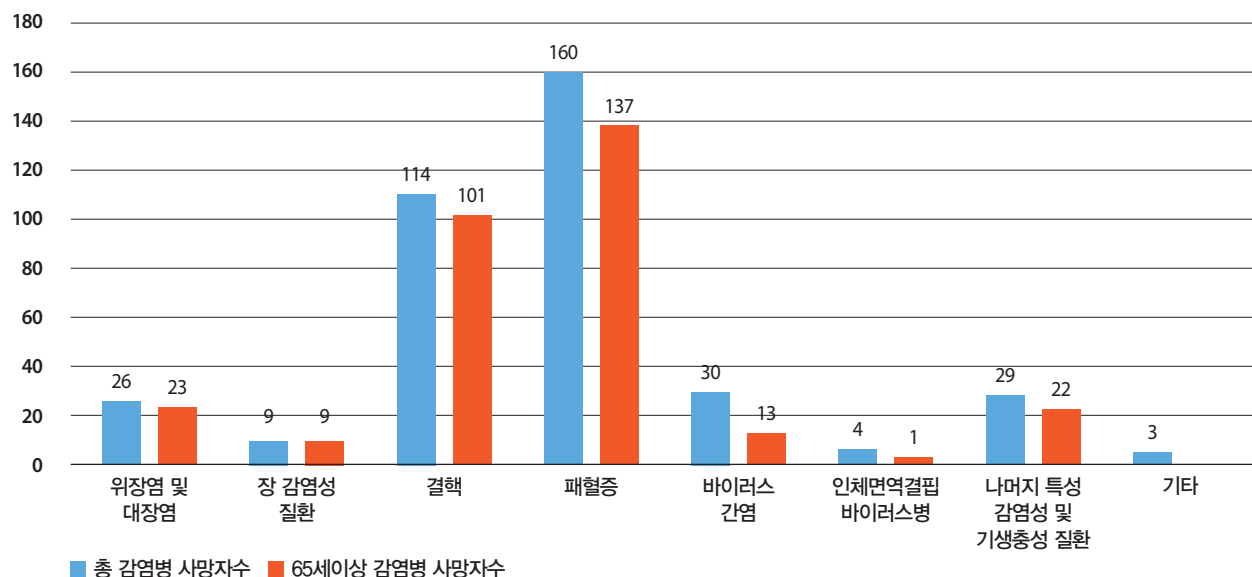
- 충남에서의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수는 375명으로 전국적으로 중위권(8위)에 해당되나, 사망자수 대비 노인 사망 비율로는 중상위권(5위)에 해당함



〈그림-4. 감염병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(2014년)〉

■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

- 원인별로는 패혈증 > 결핵 > 바이러스 간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, 고령자의 원인별 사망자수도 동일한 순으로 나타남
- 특히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각 감염원별 예방 및 치료 등 대응책 마련 필요



〈그림-5.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(감염병)(2014년)〉

3. 일본의 대응 사례

일본의 고령화 추세

-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율(65세 이상)이 7%를 넘어섰고 1994년에는 14%를 초과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¹⁾
 - 2014년 현재 고령화율은 26.7%이며, 2060년에는 39.9%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 - 그 원인으로는 사망률의 저하에 의한 65세 이상 인구의 급증과 저출산의 진행에 의한 젊은층의 인구 감소로 볼 수 있음
- 교통안전 의식의 고조와 자동차 안전성능의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,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접하는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음

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정비

- 고령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·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, 특히 고령자를 배려하여 배리어프리(barrier free)²⁾에 기초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도
 - 이동의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호기, 보도 등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
 - 「마음속의 배리어프리(barrier free)」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개선과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가·체험·실천을 통한 안전교육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강조되고 있음
 - 생활도로 등에서 사람우선의 보행공간 정비, 참가·체험·실천형 교통안전교육, 실버 리더(고령자 교통안전지도원)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, 고령운전자 대책 등



a. 고령자 교통안전대학



b. 보행 시뮬레이터



c. 고령운전자 대응능력검사

〈그림-6. 고령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(일본 기후현)〉

1) 2016년 고령사회백서, 일본 내각부

2) 장벽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, 노인·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로의 단차 등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특정한 시설이 제공된 환경 등을 의미함

지역 중심의 생활지원 추진

- 지역주민 상호간에 서로 공조(共助)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 전체가 지원하는 기반 구축에 노력
 - 생활밀착형 상담지원 사업으로서 24시간 365일 원스톱 전화상담을 받고, 필요한 경우 면접상담 등을 실시
 -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유지 및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(고령농가에 대한 농업자재 구입 서포트 등)의 제공이 가능한 체제 구축 지원

4. 시사점 및 정책방향 제언

-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그에 따라 고령층의 안전 취약성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
 - 충남의 안전과 관련된 지표수준이 전국 대비 중하위권에 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
 - 특히 지표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재난·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임
 -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피해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
 -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추세 분석을 실시하여 특성 파악 필요
- 일본 대응사례의 시사점
 -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, 머지않은 시기에 40%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
 -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동의 장벽을 제거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·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령자들의 참가·체험·실천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등 소프트웨어 측면도 동시에 적극 활용
 - 지역주민 상호간의 공조(共助)를 통해 고령자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전체가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

2016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움

■ 세미나 개요

- 일 시 : 2016년 9월 21일 10:00~18:00
- 장 소 : 리솜스파캐슬 덕산
- 주 제 : 행복한 안전충남 비전의 전망과 과제
- 주최 / 주관 : 충청남도, 충남연구원 /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
- 참 석 : 관련 전문가, 시·군 재난담당공무원 등 70여명

■ 주요 프로그램

- 초 청 특 강 : Global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(미. 플로리다주립대 Robert Wade Duggleby, Jr)
- 발 제 :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(한남대 김겸훈 교수)
지속가능한 안전생활터(호서대 배동철 교수)
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(강남대 김근영 교수)
생명가치와 존중의 안전문화(백석대 조민상교수)
함께 누리는 안전복지(원광대 양기근 교수)

